

여야 지도부 광주서 '5·18 헌법 수록' 한목소리

민주 등 야권,尹 공약 이행 촉구 이재명 "약속 어기는건 범죄행위" 조국 "개헌특위 설치 동의해야" 황우여 "모든걸 녹여낸 개헌 필요"



정당 대표자들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왼쪽부터)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여야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관련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120여명이 지난 18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여당은 논평에서 "5·18 정신은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이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원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무게를 뒀다.

황 위원장은 기념식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독재로 하지 않을까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국가 기능의 효

율적 운영에 대해 소홀한 게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헌법학에서 있다"고 짚었다.

이어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개인적으로 개헌은 지금까지 수요가 쌓여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160여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다"면서도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며 "오늘 언급했던 안 했던 이번 윤 정권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가폭력의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받드

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약속 지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서도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꼭 남겨줘야 한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 지키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역설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실천에 옮기려면 개헌해야 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특위에 동의해야 한다"며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말 없이 전문에 넣자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당 광주시당 "5·18 왜곡 폄훼 악순환 끊어야"

"오월 정신 계승·헌법 수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오월 정신을 계승하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5·18민주화운동을 44주년을 맞아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월 영령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신군부의 폭압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의 저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됐다"며 "하지만, 지금의 오월 정신은 정부여당과 극우세력의 폄훼와 왜곡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임까지 등장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현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5·18민

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5·18기념재단 주관 5·18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열망이 높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꼭꼭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에 모르쇠로 침묵하지 말고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DRONE TIME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편선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5월 14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20일
주식회사 골드주텍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306-37, 106동 1702호
(신창동, 신창유람유희레슬리버뷰아파트) 청산인 김미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 발전사업의 명칭 : 진도그린 태양광발전소 5호
- 발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891 외 4개 필지
- 발전소 면적 : 20,235.4㎡ (6,119.2평)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1) 발전설비 용량 : 태양광설비 2,985.84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7년 7월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사업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김해나
- 주민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 5. 20. ~ 2024. 5. 26. (7일간)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kjsup153@gmail.com - 연락처 : 070-4667-6566

주식회사 진도그린태양광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 발전사업의 명칭 : 진도그린 태양광발전소 6호
- 발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893 외 3개 필지
- 발전소 면적 : 17,357.4㎡ (5,250.6평)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1) 발전설비 용량 : 태양광설비 2,985.84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7년 7월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사업운영기간 : 준공 후 20년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김해나
- 주민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 5. 20. ~ 2024. 5. 26. (7일간)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kjsup153@gmail.com - 연락처 : 070-4667-6566

주식회사 진도그린태양광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直通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